

## 결실의 계절, 가을 농지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자

기사입력 2025/10/14 [18:14]

기고문

## 결실의 계절, 가을 농지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자



▲ 김철상 한국  
농어촌공사 광주  
지사장 © 남도매  
일

무더위가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온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름은 달라진 공기로 우리의 일상을 재촉하는 모습이다. 농촌의 가을은 분주하다. 올 한해의 좋은 결실을 위해 추수 준비에 한창이다. 농업인의 삶에도 우리네 농촌의 가을과 같은 결실과 성찰의 준비가 필요하다.

은퇴 이후 공적연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는 도시민과는 다르게 농업 이외에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농지연금이 조금은 덜어줄 수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영농경력이 5년을 넘은 60세 이상의 농업인이라면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서 영농에 이용 중인 전·답·과수원을 담보로 매월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자의 나이, 농지 가격, 지급 상품에 따라 월 300만원 상한 내에서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크게 종신형, 기간형으로 나뉘어진다. 종신형으로는 종신정액형(매월 일정 금액을 사망 시까지 지급), 전후후박형(초기 10년간 더 많은 월지급액 지급) 총 2가지가 있으며, 기간형에는 기간정액형(일정기간 월지급액 지급), 경영이양형(월지급액 지급 후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보 농지 매입)이 있어 가입자의 자금 수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

2011년부터 시작한 농지연금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그동안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며 해를 더할수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농지연금 상품 유형을 다양화하여 신규 상품을 도입한다. 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도입하고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하여 가입자 선택폭을 확대했다. 그리고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 내 1회로 제한했던 상품 변경 기간을 폐지하고, 기간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상품 변경을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가입자의 선택을 존중하였다.

이 밖에도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로 하향 조정하여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였다.

해마다 가을은 결실을 맺기에 좋은 바람을 보내준다. 뒤편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논밭을 평생 일궈낸 농업인 분들에게도 노후에 대한 걱정을 떨치기는 어려운 숙제일 것이다. 성찰의 계절 가



### PHOTO News



노란 물결 코스모스 가득한 '2025 나주영산강축제'



### 주간베스트

- 1 KBS인간극장 5부작 '일곱 빛깔 행복 일기'
- 2 캄보디아 납치 실종 17건→330건...골든타임
- 3 총장축제 기간 금남로 교통 통제, 우회하세
- 4 남광주농협조합장 재선거, 후보자 공명선
- 5 홍삼수 감독 "영화 싸구려로 안 해먹으면 보
- 6 여수MBC 순천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
- 7 "오늘은 '2025 나주영산강축제' 어린이 세상"
- 8 광주조달청, 공공기관-조달업체 합동 간담
- 9 기획의 땅 순천이 보여줄 콘텐츠산업의 미
- 10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달·빛 교통문화 교류



을에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농지연금으로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김 철 상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



© 남도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AD링크

## 댓글

전체댓글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닉네임 비밀번호 406 도배방지 입력 등록

관련기사목록

# 남도매일

신문사소개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 기사제보 | 보도자료 | 기사검색

TOP

남도매일 | 주소:우)61109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217번길 37-1(용봉동 1377-1)201호 |  
전화:062-415-9900 | 팩스:062-415-9910 | 이메일: namdomail@naver.com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류제균 | 부사장:강학영 | 편집국장:김남현 | 고충처리인:김남현 | 청소년보호책임자:김태영  
등록번호:광주 아-00211 | 등록연월일: 2015년 9월 9일 | 발행연월일:2009.7월1일 | 발행소:남도매일  
Copyright © 2016 남도매일.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S